

도에 구현하고 해당 유치원을 클릭하면 학부모가 필요한 유치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 공립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위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4,483개원에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거점 및 종합육아서비스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의 단설화를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아 고비용 지역 및 단설 유치원 부족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Ⅲ. 맺는 말**

1980년대 초 유아교육은 일부 상위 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은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유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아교육의 저변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유아학비와 시설 지원비를 포함한 유치원 지원 예산을 '05년 6,378억원에서 '08년 1조 590억원(교원 인건비 포함)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통하여 모든 유아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유아를 키우는 손길이 세계를 키우는 손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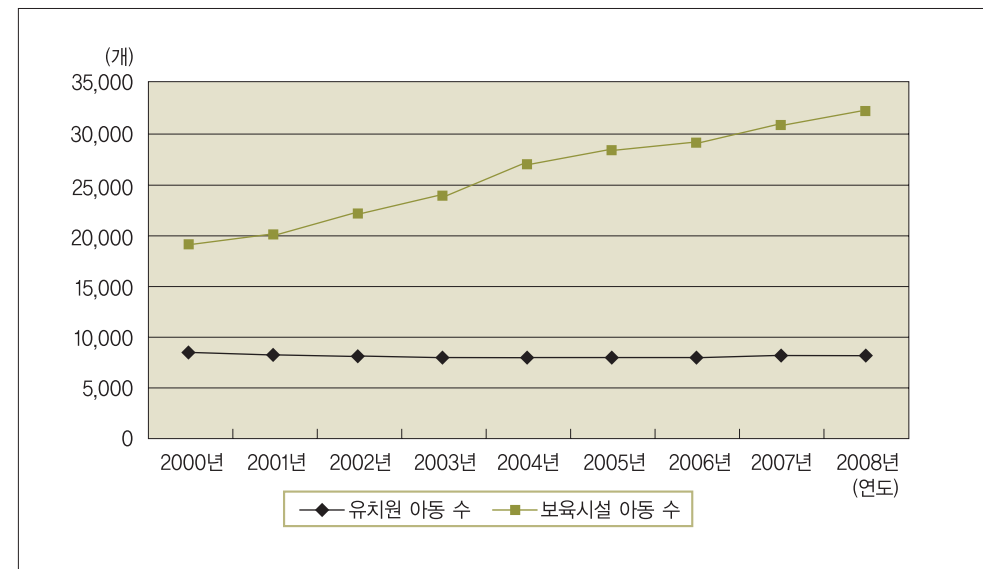
**시·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황**

장외 이세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 유치원 통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연보」(2008년 10월 자료), 보육 시설 통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통계」(2008년 6월 자료)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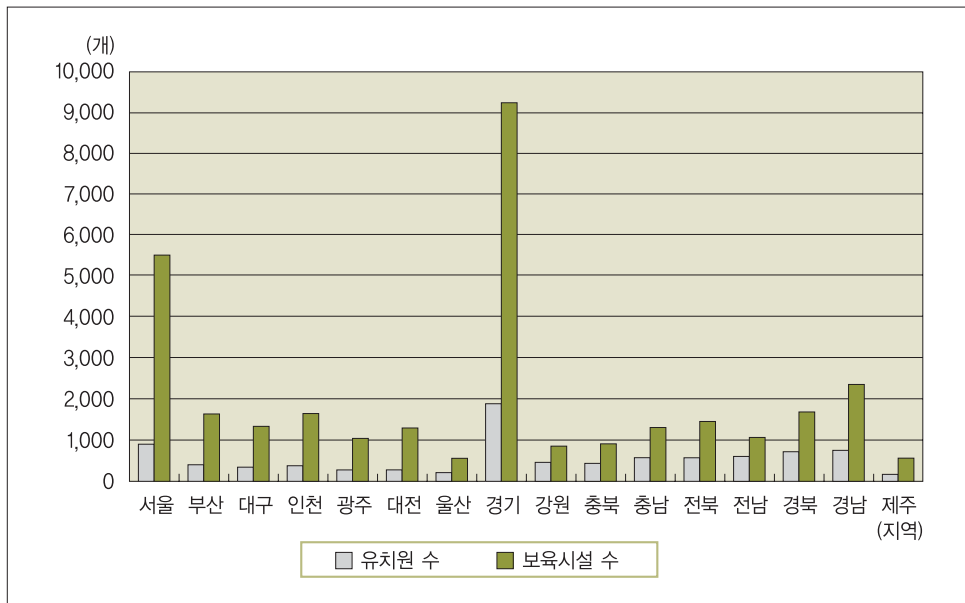
**■ 연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수**

- 2000년 전국 유치원 수는 8,494개원이었으며 2004년까지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5년부터는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08년 10월 현재 유치원 수는 8,344개원임.
- 2000년 전국 보육시설 수는 19,276개소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6월 현재 32,149개소임.
- 유치원보다 보육시설 수의 증가폭이 커서, 2000년에는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약 2.3배 많았으나, 2008년도에는 약 3.9배 많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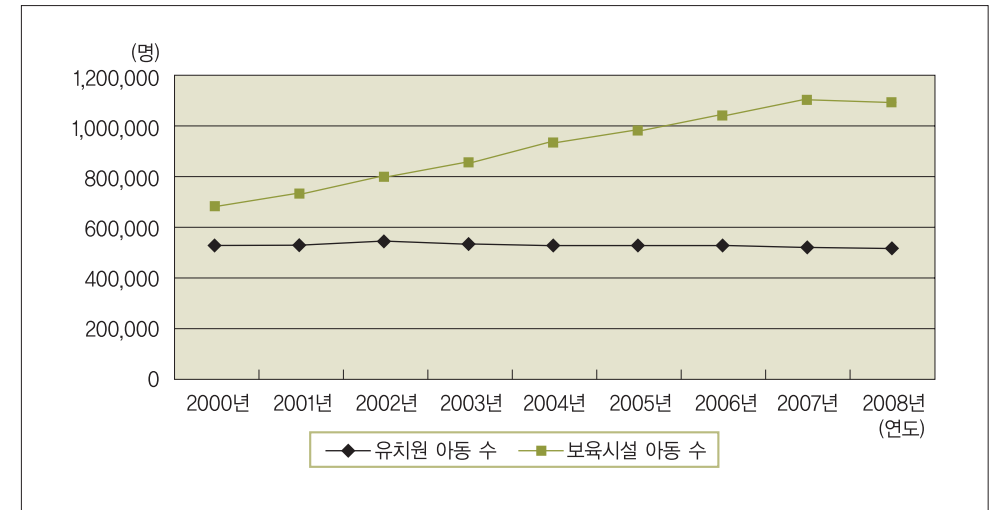
■ 시·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수

- 시·도별 유치원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883개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883개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 반면 제주도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110개원, 184개원으로 가장 적음.
- 시·도별 보육시설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9,23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은 5,519개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 보육시설 역시 제주도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445개소, 587개소로 가장 적음.



■ 연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수

- 2000년 전국 유치원 취원 아동 수는 545,263명이었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08년 10월 현재는 537,822명임.
- 2000년 전국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686,000명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월 현재 1,091,287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2000년에는 유치원 아동 수보다 보육시설 아동 수가 약 1.3배 많았고, 2008년에는 약 2배 더 많음. 그러나 유치원 취원아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증가 폭은 유치원 수 대비 보육시설 수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함.



■ 시·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수

- 시·도별 유치원 취원아 수를 보면 경기도가 136,55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82,14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 반면 제주도와 강원도는 각각 5,016명, 14,422명으로 가장 적음. 두 번째로 유치원의 수가 적은 지역이었던 울산광역시는 취원아의 경우 네 번째로 적음.
-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보면 경기도가 257,16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86,691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 반면 시설 수가 가장 적었던 제주도와 울산광역시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도 각각 21,631명, 21,715명으로 가장 적음.

